朝鮮日報 夕刊 二十一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鮮鶴 セカンク

社說 情緖敎育에 對하야

一

去十五日 朝鮮總督府令 第二五號로써 改正發布된 中學校規程에잇서서、從來에 一、二學年에만限하야 每週一時間式 課하여오든 音樂時間을 今番에 中學校 全學年을 通하야 各一時間式으로 定하야 合三時間을 增加한것은 一大改革이다。이는小、中 學校를 通하야서의 情操時間의 增加와 아울러 劃期的革新이라 아니할수업다。從來의敎育이吾人의 性能中 知能만을偏重하고 따라서 知識技能의 注入에만 汲汲한 感이 잇든데 對하야 今番의 改正은 情意에도 智能과가튼 程度로 重要視할것을 明瞭히 示唆한것이 注目된다。

二

길게 말할것도업시 人間의行動은 知能만이 支配하는것이아니다。도리혀 만흔 境遇에 잇서서 人間은 知能보다도 感情에 依하야 左右되는것이다。慣用하는 述語를 빌어 말하면 所謂喜怒哀樂愛惡欲의 七情은 人間生活에 잇서서 가장 큰 原動力이 되는것이다。吾人이 飢渴을 避하고 寒暑를 避하는것은 生理的要求에도 基因하는것이나 同時에 이는 不快를 주기때문이다 吾人이 稱讚과 名譽를 追求하는것은 本能에도 基因하는것이나 同時에 이는 滿足을 주기때문이다。科學者는 眞理를 探求하기 爲하여 道德家는 善을 實踐躬行하기 爲하야 藝術家는 美를 表現하기 爲하야 宗敎家는 心靈을 救援 하기 爲하야 非常한 努力을 하고 無限한 犧牲을 바친다。勿論 거기에는 不少한 苦痛과 煩惱가잇다。그러나 그들은 보다큰 滿足과、보다큰 愉快를 爲하야 一時的苦痛과 一時的 煩惱를 不顧하는것이다。더욱 個人間의 反目이라든가、家庭內의 不和라든가、國際間의 鬪爭은 흔이 感情의 疎隔、感情의 衝突로 因하여 釀成되는것이다。이가티 感情은 善惡間에 吾人의 思想、行動에 實로 多大한 影響을 미치는것이 事實이다。從來의 敎育은 이 人間性을 等閑視하엿다。無視하엿다。明日의 敎育은 이 點을 是正치안흐면안된다。

三

敎育이라것은 要컨대 人間性能의 圓滿發達을 目標로하는것이므로 知能을 鍊磨하는 同時에 人間性能의 重要部分을 占領하는 情意의 訓練 陶冶에도 留意하지안흐면 안된다。敎職에 잇는者는 모름지이 敎育期의 兒童 生徒 學生의 情緖를 醇化하야 高潔圓滿한 知的情操、道德的情操、美的情操、宗敎的情操等을 涵養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그리하야 生活上 適切有用한 知識技能을 具備하는 同時에 快活醇美한 心情을 가지도록 努力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

勿論 情緖敎育은 音樂科나 圖畵科에만 一任할것이 아니다。修身科와 公民科를 通하여도 할수가잇다。國語漢文科와 朝鮮語科를 通하여도 할수가잇다。歷史地理科와 外國語科等을 通하여도할수가잇다。吾人은 情緖敎育을 爲하여서도 學校라는 環境을 整理할必要가잇다。理想化할 必要가잇다。더욱 敎育者自身이 이方面에 잇서서도 思想으로、言語로、行動으로 模範을 보여야할것이다。모처럼 改正된 이 規定을 活用하도록 最善을 다하자。그리하야 第二世國民으로하여금 오직 快活醇美한 心情을 가지도록하자。

太原陷落四個月만 山西平定完成
鯉登部隊吉縣占據

【臨汾二十日發同盟】老獪한 蔣介石에게 利用되야 山西의 最南端禹門口로부터 追擊된 山西隰縣、吉縣、鄕寧等 山岳地帶의 殘敵部隊의 掃蕩을 最後로 敵將閻錫山이 首都太原을 抛棄한以來로 四個月、本格的 山西南方作戰을 開始한 以來로 僅月餘에 山西全省平定은 이에 完成되엿다

【臨汾二十日發同盟】鯉登部隊는 二十日午前四時半에 吉縣을占領하고 繼續하야 午後二時에 小林部隊도 步武堂堂히入城하엿다 이리하야 山西、西南方殘敵掃蕩戰開始以來 三日만에 敵의 根據地鄕寧、吉縣은 完全히 我의手中에歸하고 敵은 支離滅裂하야 西方地區와 北方에 潰走하엿다 吉縣은 山西省南方의 要衝으로 山西省要人이 避難集結한곳이다

【臨汾廿日發同盟】我吉縣鄕寧의 包圍陣은 鄕寧의 陷落에依하야 益益 縮少되야 十九日에는 鄕寧을救한 小林部隊는 敗走하는 敵을 急追하야 吉縣東南二里되는 地點에 肉迫하야 猿馬를 陷落하고 또 北方으로부터 進擊한 鯉登部隊는 吉縣을 臨하기 僅一粁되는 地點에 肉迫하고 一方 頑强히 抵抗하는 敵을 擊破하고 山岳線을 攻拔하고 進擊한 鈴木部隊의 主力은 東方四里되는 地點에 進出하엿다 이리하야 好意잇는 我歸順勸告를 一蹴한 敗殘 山西、四川軍의 殲滅은 目睫間에 迫頭하엿다

松田耕平氏 長岡市長에當選

【東京電話同盟】長岡市長選擧會는 十七日에 開會하고 民政黨推薦 松田耕平氏가當選、十八日 承諾書를 提出하야 第六代市長에 就任하엿다

如皐完全占領發表

【上海廿日發同盟】上海軍廿日午後五時發表

通州를占領하고 北上한佐藤枝隊는 十九日午後一時에 如皐를占領하엿다 飯塚、八隅兩部隊를 爲始하야 諸部隊는 通州占領後에 即時 北上하야 十八日 丁堰鎭에서 約六粁에亘하는 陣地에依據하야 抵抗하려한 敵을 即時 擊退하고 翌十九日朝에 如皐에向하야 進擊하엿다 如皐前面에는 約二千의敵이 激烈한氣勢를 보엿스나 忽然退却하고 各部隊는 빨리도 午後一時에 如皐를 完全히占領하엿다 一方 崇明島에上陸한 谷川部隊는 十八日까지에 同島의北半分을 平定하고 十九日부터는 同島南部方面의 殘敵을 掃蕩中이다 이리하야 上海의 抗日分子의 策源地인通州附近과 崇明島는 着着 皇軍의 威武에 征服되고잇다

政友新幹事長 砂田、岡田、堀切三氏中?

【東京電話同盟】政友會에서는議會終了를기다려 議員總會를열고 新首腦部의人選을 決定하기로되엇는데 幹事長에는 松野現幹事長 砂田重政 岡田忠彦 堀切善兵衛의諸氏가 有力視된다 그러나 松野幹事長은 目下 中耳炎에걸녀重任은 거이不可能하게觀測되므로 結局 砂田 岡田 堀切三氏中에서 選任을보기로 될模樣이다

天銘昌師長戰死 徐章、陳離는重傷

【上海二十日發同盟】漢口來電에依하면 津浦線北端에 잇서서의 我軍의南下徐州攻略에對하야 支那側은 熱狂的으로 防禦를奮鬪하고 津浦線을中心으로 東方으로부터 關炳勛 張自忠의兩軍과 西方으로 부터 孫桐萱 曹福林兩軍으로써 南下를 制止하려는 作戰을 取하고 잇는데 滕縣의 戰鬪에서百二十二師長 天銘昌은 戰死하고 同參謀長徐章과 百三十一師長陳離는 重傷을입고 幕僚多數가負傷하야 兩師團은 거의全滅的打擊을 바덧다

春季皇靈祭

【東京電話同盟】春季皇靈祭인二十一日 宮中에서는 午前十時 天皇陛下御親祭下에 皇靈殿及神殿에서 嚴肅한御祭典을 行하압시고 皇祖神祇의 神靈을 御慰하압시엇다 午前九時부터 近衛首相以下文武百官이次第 參着 秩父宮殿下를奉始 在京各皇族께서도 御正裝御參列하시엇는데 皇靈殿에는 三條掌典長以下奉仕 天皇陛下께압서는 御束帶黃櫨染의御袍로 御裝束하압시게 內陣의御座에 御參進 御拜禮 御告文을 奏하압시엇다 皇族御拜禮、諸員拜禮잇슨後 御同樣神殿祭를 行하압시고 陛下께압서는 入御하압시엇다

西尾氏除名코저 政民態度强硬
幹部들의斷案이注目

【東京電話同盟】社大黨 西尾末廣氏에關한 懲罰問題는 자못重大性을가지는關係上 政民兩黨에서는 二十二日午前十時부터 院內에서 各各幹部와 當該委員의聯合會合을열고 愼重協議한後 또兩黨幹事長이會合하야 意見一致를보게되면 同日午後二時부터懲罰委員會를열고 討論으로드러가 그態度를 決定하기로되엿다 그러고 政民兩黨과 第一議員俱樂部의大勢는 依然히西尾末廣氏의 國家總動員法等討論當時에잇서서의演說은 惟勞히하여도 勅語를批判하고 特히五個의 御誓文을 曲解하고 專制主義、獨裁主義를謳歌한데不過하다 어는同氏의 第七十一議會에잇서서의 言論에徵하야 또는日常의言動을 調査한바에依하야보아도 社大黨方面에서 辯解할理가든 片言隻語或은無準備의措辭가아님은 明白하다 따라서 西尾氏가自進하야 自決하는態度를 取하지안는以上 除名處分을할바께업다는 强硬論에 기우러저 幹部에 對하야 이를 催促하는 狀態이고 右에對하야 政民兩黨首腦部가 果然 如何한 最後의 斷案을 내릴지는 자못 注目된다

敗退?歸順? 岐路에선廣德方面의敵

【上海廿日發同盟】上海軍廿日午後五時發表

軍은 江北方面의 作戰에呼應하야 廣德方面에侵入한 敵을擊破하기爲하야 去十四、五兩日에 蕪湖、杭州와 太湖西方地區로부터 行動을 開始하야 敵을 擊破하면서 逐次 그包圍陣形을 縮小하고잇다 破竹之勢에잇는 皇軍의 津浦線北上을 極度로 두려워한 敵軍은 兵力을分散 或은 牽制키爲하야 或은 逆襲을試하고 或은『게릴라』戰術을 使用하는等 여러가지 對應策에 腐心하고잇는데 最近에 이르러 江南地方의我警備區域의 後方을衝하려고 約二個師의兵力을蕪湖、杭州의 間隙에侵入케하엿스므로 新銳我軍은 十四、五兩日부터 湖州、杭州、蕪湖、嘉湖、金壇의 各方面으로부터 一齊히 進擊을開始하야 漸次敵陣을 包圍하고잇다 따라서敵軍은 全然 釜中之魚가되야 只今 敗戰할것인가 歸順을할까하는 岐路에 서잇다

電力案依然難航 會期延長?

【東京電話同盟】貴族院에서 難航中인 電力案에 對하야 兒玉委員長은 그經過를 憂慮하야圓滿成立을 圖하기爲하야 各方面으로 奔走中인데 現在의狀態로보면 目下審議中인 農地調整法과 國家總動員法은 다會期中에成立이 確實하고 電力案만이幾分危險이잇스므로 同委員長은研究會常務酒井忠正伯으로 十九日夜에訪問하고 電力案의 成立을 期함에는아모리하야도 會期를延長할必要가잇다고생각하나 어만으로 會期를延長함은 조치못하고 도리혀逆作用을 招來할 念慮가잇스므로 農地總動員兩法案의審議에 工作을加하야 電力案과 併行케하야 三案에對하야 政府로서 會期延長을 奏請케하면 如何한냐 고 提議하엿다 이에 對하야酒井伯은「電力案成立을 爲하야 兩重要法案의 審議에 工作을 加함은 穩當치안다」述하고 이로拒絶하엿다 따라서 農地總動員兩法案은 會期中에 成立한다하여도 電力案은 依然히難航을 繼續하야 그豫測도 容易치 안코 或은 本法案에 對하야不得已 會期延長하게될는지도 모른다고 觀測된다

바市空爆損害 死傷者千九百名

【바르세로나十九日發同盟】人民戰線軍의首都바르세로나市는 去十七日프랑코軍의 大空襲으로甚大한被害를 當하엿는데 十九日또三台의 프랑코軍飛行機가 마요르카島方面으로부터 바르세로나에向하엿다는報告를接하고 다시緊張되야 多數한 人民戰線軍戰鬪機가 市街의上空을 間斷업시警戒하고잇다 一方 市民은爆擊後의廢墟에奔忙하고 閉鎖된商店도 漸次開店하야 市內는다시平常狀態에歸하엿다 崩落된 土砂에무친 家屋의殘骸를보면 아직도 死體가續續 나타난다 十九日에 이르러 空爆에依하야 負傷한것이 또十名 死亡하엿는데 이로써 이大空襲의 損害는死者七百名 負傷者一千二百名의多數에達하엿다

蔣系諸新聞이 共産派를攻擊

로이텔通信社의 漢口特電에依하면 支那共産黨의 國民政府首腦部에對한 反感은 漸漸激烈하야 國共合作의 會도가는 벌써 時日問題로 廢棄될 運命에잇다한다 그리고 이爭勞를 看取한 蔣介石直系의新聞、機關紙는 支那共産黨의 抗日煽動行爲는 國民黨의統制下에서만 許可되는것이며 따라서 如何한 境遇에라도 國民政府의 指揮命令에 服從할것이다 然而 最近共産黨이 國民政府內에 一種의 이니시어티브를 取하려하고잇는 態度는 容認치못할것이라고 論難하고 共産黨의 이態度가 이以上發展하는 境遇에는 斷乎 彈壓치안흐면 아니된다 現在共産黨은 五十萬의 兵力을 準備하고잇다 고하엿다

林榮上等兵戰死

事變勃發과함께 應召出動하야 武勳이 赫赫한 小林部隊의上等兵 林榮氏(二七)는 去二月二十五日에 蘆石附近의戰鬪에서 名譽의戰死를하엿다고 十九日에 發表되엿는데 氏는東京市四谷區南町二九出生으로 昭和八年三月 京城公立商業學校卒業과 同時에 朝鮮商業銀行에 奉職하고 將來가囑望되든 靑年이다 그런데 同氏는 林卯吉氏의二男으로 現住所는 京城府元町二ノ四四이다

津浦線回復在邇

【北京二十日發同盟】山西省과京漢線地區의 作戰에劃期的成果를거둔我軍은 鋒을轉하야 去十四日부터 津浦線 北段沿線地帶에蟠居하는敵에게 猛擊을 加하야連戰連勝으로 이미界河、北沙河、滕縣、南沙河、官橋、臨城의諸要衝을 攻略하고 十九日에는 韓莊을 陷落하야 遠히神天、徐州를指呼間에 노려서 隴海線의敵을놀라게 하얏다 隴海線上의敵總兵力은 槪算六十個師라고稱하고連雲港、海州를 起點으로歸德에至하는 津浦線交叉點一帶에約二十個師를 蘭封、開封、鄭州、洛陽等京漢線交叉點을 中心으로約二十個師를配備하고 西安에至하는地區에約十個師를配備하고李宗仁自身이 最前線徐州、歸德方面에 出馬하고잇다 그러나此等敵軍은 過去九個月間에亘하야 我精銳에게 거이全滅된敗殘部隊를 再編成한것에 不過하야 裝備劣惡、補給困難、訓練의不足 戰死傷에依한 一般兵士의 低下等에依하야 그戰力은 事變勃發當時에 比하야 거이四分之一程度로低落하고 敗戰으로 將兵一同을支配하고잇스므로 모두戰意를喪失하엿다 따라서 多數를擁하고旣設陣地에蟠居하드라도 다시我軍의包圍攻擊을바드면 이脆弱性을暴露하야 沈藻地帶東側의要衝이全部奪取되고 隴海線(臨城、臺兒莊間)을 手中에너코 制壓하고 遂次로殲滅包圍하는態勢를 取하고잇는 津浦南北으로부터하는 我軍의包圍에依하야 逐次 敵은 釜中之魚로化하고잇는데 徐州一帶의敵軍은 我精銳의前에 畏伏하야 津浦線南北端의 連絡이 完成하고 天津、北京間의自由交通이回復될것도 不遠하리라期待된다

安徽全省에亘해 敵、一齊히逆襲
正規兵督戰隊의行爲

【蚌山集二十日發同盟】十九日午後四時지나 蚌山東附近의 楊店에 襲擊來한 敵八百은 다시七回에亘하야 猛烈한逆襲을 試하엿스나 我吉田部隊는 어어砲機銃의 猛射를퍼붓고 또一部는 敵主力部隊中에突入하야 交戰二時間의 後에 이를擊退하엿다 이激戰에서 敵의遺棄死體는 判明된것만도 五百에達하고 我方의 損害는 輕微하다 이리하야 十八、十九의兩日에亘하야 安徽省各地에 亘하야計劃的으로 一齊逆襲하여온 敵은 敗退하고 吉田部隊의 捕虜의談에依하면 敵은 多數의 正規兵을 督戰隊로 土民과 紅槍會員을後方에 配置하고 이에强制的逆襲을 시킨것으로 此督戰兵은 모두便衣隊이다

日滿航空新다이야 四月一日부터實施

【大阪電話同盟】日本空輸會社는 如左히 空路新다이야를編成、四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되엿다

▲東京―大連線

『下便』東京發午前十一時、名古屋着午後零時五十分、名古屋發午後一時、大阪着午後一時五十分、大阪發午後二時、福岡着午後五時

『下便』東京發午後二時二十分 名古屋着同四時十分、名古屋發同四時二十分、大阪着同五時十分

時、大阪着同七時十分

『下便』大阪發午前七時二十分 福岡着同十時二十分 福岡發同十時四十五分 京城着午後一時十五分 京城發同一時二十五分 大連着同五時三十五分

『上便』大連發午前七時二十分 京城着同十時三十分 京城發同十時四十分 福岡着午後二時 福岡發同二時十分 大阪着同五時十分 大阪發同五時二十分 名古屋着同六時 名古屋發同六時十分 東京着同七時四十分

『上便』福岡發午前八時 大阪着同十一時 大阪發同十一時十分 名古屋着正午 名古屋發午後零時十分 東京着同二時

『上便』大阪發午後一時 名古屋着同一時五十分 名古屋發同二時 東京着同四時五十分

▲東京―新京線

同十時四十分 福岡發同十一時 京城着午後一時〇五分 京城發同一時三十五分 奉天着同三時四十五分 奉天發同四時〇五分 新京着同五時〇五分

『上便』新京發午前七時五十分 奉天着同八時五十分 奉天發同九時十分 京城着同十一時二十分 京城發同十一時五十分 福岡着午後二時〇五分 福岡發同二時三十分 東京着同六時十五分

人事·集會

▲林炳商氏(龍游漁業組合理事)十九日午後四時五十分 仁川府立病院에서 逝去 永訣式은廿一日午後二時 京城府內安國洞禮拜堂에서擧行

▲韓祐成氏(東亞日報平壤支局長)新任人事次來社

▲金光洙氏(本社營業局長)咸南北出張中二十一日歸任

八面鋒

◇ 瑞山近海를 航行하든 發動船 暗礁에 부디처 沈沒。

◇ 原因은 定員과 貨物定量을 超過搭載한때문。

◇ 營利會社의 失策은 勿論、當局의 이에 對한 取締와 監督이 不足함도 事實。

◇ 그러나 워낙 難航으로 有名한 곳이라 좀더 避難、救濟의 設備도 必要할것。

◇ 全朝鮮을 터러노코 一年間海難事件으로 當하는 人命 財産의 損失은 實로 莫大。

◇ 그만치 그에 對한 設備가 必要。

◇ 어제가티 조흔 봄날씨도 오늘은 봄비로變하엿네。

◇ 이비는 단비、온갓 草木을 萌動케하는 비。

今日本紙四面

內河航行制限
違反時엔船舶積荷抑留
陸海外省當局發表

【上海二十日發同盟】上海를中心으로 占領地域內各方面으로부터 通하는 內河航行에對하야 軍事取締의 必要上 三月二十日以後는 嚴重한 制限을 設置하기로되야 二十日陸、海、外三當局은 次와가티 發表하엿다

內河航行에關한 陸海外務當局發表(昭和十三年三月二十日)

一、大日本帝國 陸海軍占據地域의 左記航路는 當分間 大日本帝國陸海軍의 名義로發給하는 內河航行許可證을 가진船舶外에 機械로써 運航하는 一般船舶(機、機帆等으로 操縱하는것을 除함)은 通行을禁止하기로되엿다 萬若이에 違反한境遇에는 船舶과積荷는 抑留되는 일이잇슬터이다 但은으로 繼續하는 船舶이라도 同航路를 運航하려는者는 前項과同一한 許可證을 바들것을 要한다 許可證의 發給을 바드려하는者는 船名、船種、航行期間、運航目的을 明記한 願書各一通을 陸海軍과 海軍特務部長에게 提出하면 審議한後 無料로 航行許可證을 下附할터이다 (가)上海―松江―嘉興―杭州 (나)上海―松江―平望―嘉興 (다)上海―黃―湊賓宅 (마)上海―崑山―蘇州―無錫―武進―丹陽―鎭江 (바)上海―崑山―常熟―蘇州 (사)上海―嘉定―太倉―常熟 (아)上海―崇明―通州

二、前記以外의 小河川과 局地的 航路는 時的 制限을 하지아니한다 但大日本帝國陸海軍에서 必要잇는 境遇에는 右의運航을 一時中止하고 또는 制限을하는 일이잇슬터이다

三、第一項記載의 航路에잇서서의 航行範圍는 저장 가까운 港의浙輸船公司의 出張所所在地까지로한다

四、營業을 目的하지안는 船舶運航에 關하야는 時的制限을 하지안는다 但第一項 記載航路의 通行에 關하야는 同項에準하야 許可證의 下附를 要한다 軍은 取締의必要上 有效하다고 定한다 하드라도 勿論支那良衆의 生活을脅威하고 또는 在來의 航運을 改變하려함이아니다 支那良民은 安心하고 生業을 經營하고 狀況에 依하야는 浙浙輸船公司와 提携하야 協同運航에 從事하는等의 方法을 講究할것이다

諸島歌謠 山口屋小動物園

時計士養成 京城時計修理院

恩給 低利即時立替 京城鍾路三丁目七 鄭商會

朝報案內

自動車 最高權威! 自動車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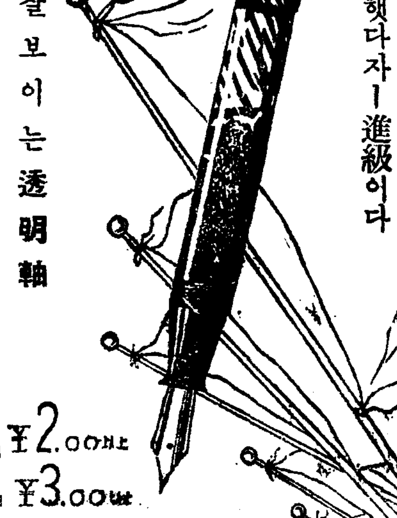
家具 事務用椅子卓子書箱 根一商會

入學 京城中學校入學案內

社員招聘 獨創的小完惡意保險業務開始 太平生命京城支社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七三

アイスケーキ機 生産能率絕對責任保證付 京城府錦町 河內商會京城營業所

社員招聘 年齡二十五歲以上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京城府長谷川町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パイロット高級萬年筆 特約店 耶蘇教書館 京城鍾路二丁目九一番地 電話光化門二〇九〇番

京城外國語學院 晝夜生徒募集 ▲外語部(英語、中語、獨語、佛語) ▲豫科(中學、實業及師範入學準備) ▲本科(中學二、三、四、五學年程度) ▲英數科中學編入及專門大學受驗準備 ▲開學四月八日 ▲詳細照會 京城府

宣川商業實修學校 生徒募集 (平北宣川邑) ▲募集人員 第一學年約五十名 ▲修業年限 三個年 ▲出願 三月二十九日限 ▲試驗 三月三十日、三十一日、四月一日、二日間

大東商業實修學校 生徒募集 第一學年 五十名 試驗期日 三月三十一日 京城府

電醫療士研究生募集 朝鮮高等電醫研究所

海龍丸沈沒慘事는 朝運側의過失에서!

貨物積載量超過、定員以上船客收容 遭難者家族慰籍方法如何가注目處

【仁川支局電話】작보=지난십구일 주문진앞금산포(錦山浦)근해에서 조선운송회사 인천지점(朝運仁川支店)소유 발동선 해룡환(海龍丸)의 조난원인에대하여는 그후 조운지점측파 인천해사출장소및 인천서에서 현장조사한결과 보지 해룡환은 조운사십구돈의 적은 발동선으로서 승객정원이 스물네명 바게 안되는데 다가 출범당시 십여명을 선원들이 임의로 더태운것이 첫째원인이고 또게다가 더무겁게 실었든것이 둘째원인으로 그야말로 약마복중(弱馬卜重)이된데서 이런참사를 비저낸것이라한다 따라서 조운측에서는 이상과가튼 자기네의과실이 판명됨과동시 방금 조난자들의 위조대책을 강구하는중으로 조운당국의 위자방법여하는 매우 주목되는바이다

救助當時의慘景

十七名은艱辛救命

【仁川支局電話】별항=해룡환의 조난사건에 대하여 서산경찰서로부터 인천경찰서에 드러온정보에의하면 그배에탓든 승객삼십여명중에서 겨우승객 열한명과 림칠성(林七星)이라는사공 한명등모두 열두명만 구조정(救助艇)으로 봉도(鳳島)라는섬에 무사히 상륙시켜노코 다시지나가는범선 한척을맛나 조단현장으로 달려가 보앗스나 때는이미 느저서 해룡환도 승객들도모두자최가 사라지고 말엇다한다 그런데 전기 열두명을 구조해낼때의 광경은 실로 처참하엿스니 즉 삼십여명중에서 열두명만 구조정으로 옴겨실을때에 남어지 사람들도 우를 서진 아우성을 치면서 "나도 살려주오! 나도 태워주오"하고 애원햇스나 원낙적은 "뽀-트"라 그이상을 태워다가는 이미 옴겨태운 열두명마저 물속에집어너케되고말것이므로 애석하고 눈물나는일이지만 할수업시 닷줄을 끈어버리어 더타지 못하도록 하엿다는것이다. 그리고 전기 열두명외에 다음다섯명도구조되엿다는 전보가이십일 오후일곱시반 조운인천지점에드러왓다

▲申英淳(四一) ▲宋明寬(四六) ▲金氏(女子)(二三) ▲金用俊(二四) ▲宋錫烈(一〇)

警備船活動 別無所得

【仁川支局電話】해룡환 조난의 급보를밧자 인천서의 경비선 조운환』(朝運丸)은 이십일오후한시 현장으로급행 인천해사출장소소유경비선『흥기환』(興起丸)도 가튼날가튼시에 현장으로급행햇다가 아모 소득이업시 오후여섯시에 그대로 도라오고말엇스며 또비행사 신용욱(愼鏞頊)씨도 조운인천지점의 의촉을바더가지고 가튼날 오후한시반쯤되여 현장으로출동, 약사십분간 정찰비행을햇스나 선체도 조난된 승객한명의 그림자도발견못되고 헛되히 도라오고말엇서 남어지 약십칠명의 안위는 아수절망으로 볼수밧게업다 그리고 이십일저녁에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중한명은 인천금곡정(金谷町) 조씨(趙氏)(三〇)로 판명되엿다

海州名門의骨肉相爭

一審서勝訴한原告 二審에서는敗訴

八萬圓土地다시被告에게로 注目되는事件의歸結

【海州】해주의백만장자이며 시내모녀자 보통학교의 설립자로 해주교육계에 큰공적을보여 각방면에 신망이두터웟든 고유순익(劉淳益)씨가문에는 시가약팔만원가치의 토지를중심으로하여 『골육상쟁』이 버러지엇스나 유홍영(劉鴻榮)씨의 무조건으로 일만오천원을 제공함에의하야 중간에화해(和解)가 성립되엿든바 화해조건에대한 견해의상위로 화해는깨여지고 일반식자계급의 수목미테 다시소송이진행되든중 해주(海州)의 일심에서는 원고의주장대로 문제의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라는원고 승소판결이내리엿스나 평양(平壤)의 제이심에서는 제일심의판결을파기하고 토지를 반환하지안허도조타는 피고승소의 판결이내리어 다시금 해주사회에 새로운이야기거리를 만들고잇다

이제사건의 내용을보면 지금으로부터 십수년전 전기유순익씨가 병으로인하여 세상을 떠나려든때 동시 재산을 분배할때 그의 후처 공석동(孔昔東)에게 해주군동강면사인리(東江面舍仁里)와 해남면오남리(海南面梧南里)두곳에 노여잇는 전답합하여 약십오만평을 분배하고 부대조건으로 공석동이도한 세상을떠나는때에는 고인의 손자로 유홍영(劉鴻榮)씨 맛아들경현(璟鉉)이 양손이되는동시 그재산을 상속하도록하라는 유언을남기고 세상을 떠낫다한다

다시 경현은 동경(東京)에유학의배로 경현의 집안에서는 맛아들을 가모양으로 보낼수업다는 일부의 반대도잇서 시이거대한 재산의분배를바든 공씨는 경현의사촌형되는 해주읍북욱정(北旭町)종현(琮鉉)이를 데리고 사러오든중 소화칠년에 공씨마자 세상을떠나버리자 종현은 공씨가 생존시에 그토지를 식은(殖銀)에 일만이천원에 저당대출을바더 그돈으로 시내정내여학교(正內女學校)건축비로 쓰든터이라 그부채를상환하고 친족회의결의를거처 자기명의로 토지를상속시킨후 지금까지 관리하여와다한다

그러든중 경현이 재작년 동경으로부터 도라온후 그재산은 조부의 유언에의하야 자기의것이니 돌려보내달라고 수차교섭을햇스나 이를 일축하므로 경현은 드디여 작년오월경 변호사김영택(金永澤)씨를 소송대리인으로하야 종현을상대로 해주지방법원에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유씨가문의 『골육상쟁』이 진행중이엇는데 원고와 피고(종형제간)의 백부되는 시내북욱정(北旭町)유홍영씨는 가문의 영예를 확보하려는뜻에서 자기가 일만오천원을 원고경현에게 주기로하여일단화해가 성립되엿다한다

그러나 그후경현은 일만오천원을자기가 백부로부터 바듬에의하야 권리를포기하는것이 아니라 자기가일만오천원을 피고종현에게주고 그토지를 찻는것으로 그릇인지하엿다는 리유로서 그리협을부정하야 유홍영씨의후의에의한 화해도 깨여지고 소송이 다시게속되든중 작년십이월경 해주지방법원에서 원고승소의판결을 내리자 피고종현은 자기의사촌동생(원고) 부자가 조부모의제사도 밧들지안코 조건업시 재산을내주는것은 너무나 종형제간이라도 분하다고하야 권형렬 심상돈(權衡烈 沈相敦)양변호사를 대리인으로하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 상소하엿섯는데 지난 십

訴訟副産物로 刑事問題登場

李康熙氏를僞證罪로引致

【海州】시가약팔만원가치의 토지를중심으로하야 해주의백만장자 고유순익(劉淳益)씨의 손자 해주읍북행정(海州邑北幸町) 경현(璟鉉)씨와 사의사촌형되는 시내북욱정(北旭町)종현(琮鉉)씨새에 전개바든 "토지반환청구소송"사건은 일심에서 원고경현이 승소햇스나 평양이심에서는 반대로 뒤집혀 피고가 승소되엿다함은 별항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이사건의 부산물로서 형사문제가 등장되고잇서 사건은더욱악화되고잇다

즉 이소송사건은 유씨가문의 영예를 확보하려는 원피고의백부유홍영(劉鴻榮)씨가일만오천원을 무조건으로내노와 원고경현에게 제공한다는것으로서 타협되엿스나 원고경현이 이를부정하고 자기가일만오천원을 피고종현에게주고 문제의토지를 찻기로하엿다는 주장에대하야 해주군송림면송현리(海州郡松林面松峴里)사는 리강희(李康熙)(五〇)씨가 증인되엿섯는데 이번이심에서 승소한 피고종현씨는 해주서(海州署)에 위증죄(僞證罪)로 고소를제기하엿는데 동서에서는 즉시지난십사일 리강희씨를인치하고 엄중취조중인데 아직자백은하지안호나 위증한의혹이 농후하다고 하며 더욱이나 일심의 원고 유경현의 아버지 홍영씨로부터 유모(劉某)에게도 친원을건너이니 사실이잇다고 해달라고하엿스나 유모는 보지도 못한일은 천금이생긴대도 증인못하겟다고 거절을하야 일망의수가업다고 하며 이문제는 까지도잇서 압흐로의 이문제는 형사문제로부터 더욱 확대될것갓다한다。

趙司法主任談

위증죄로

暴惡한抱主에飛霜

龍山署에서花月樓主人에營業取消命令

기보시내미생정(彌生町)삼번지 유곽화월루(花月樓)창기 정학경(鄭敬香)파 조일(朝日)의 두사람이소관서에 보안계에맛타나서 포주의 행악을호소하여 드디여 포주들의 악행에단서를 잡고 지난십오일 형사대가 활동을 개시하여 화월루(花月樓)에 가서 장부등을 압수하고 주인전야(前野)쓰야를 인치한후 취조한결과 창기의계서 장부를속여서 이년동안에 오천원을 사취하여 사복을 채워오든것이 발각되여 세상의이목을 놀내이게하드니 그후에계속하여 취조한결과 그외에도 여죄가만흐므로 작십칠일부로서 소관용산서에서는 영업의 취소명령을 내리엿다고 한다 그리고 형사대는 다시유곽 유지전등에 여차한악포주들을 밀전발하여 단연처벌할 방침을 세우고 대활동중이라고한다

西海岸에暴風雨襲來

海州中心水路杜絶 出漁船安危念慮

多少被害도잇스리라고豫想 道警察部沿岸嚴戒中

【海州支局電話】이십일일오전세시부터 황해도 일대에는 돌연 폭풍우가 습래하야 해주항(海州港) 동강면(東江面)간통항래 하는 나루배가 단기지못하야 수상교통이 두절되엇고 오전일곱시에 인천(仁川)으로 출범할예정이든 비길환(飛吉丸) 춘해환(春海丸)도 폭풍으로인하야 출범을 못하고잇스며 어제해주항에서 옹진(甕津)과 태탄(苔灘) 방면으로 곡식을실은 범선세척이떠나서 금일오후에 돌아올예정인데 이도 폭풍으로 인하야 수로에 이상이 생기지 안헛는가 의심이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 정보가 업기 때문에 알수업스며 수일전 대판(大阪)에서 해주로오든중인 원전환(原田丸)도 금일오전에 도착할예정이나 서해안의 폭풍과 바다안개때문에 항해가 염려된다한다 아직까지 폭풍우는 계속하고잇서 서해안일대의 선박의 피해도 다소 잇슬것으로 추측되는바 황해도경찰부에서는 특히 연안일대 각주재소에 경계할것을 수배하얏다

女子만사는집에 食刀든覆面强盜

黃州署犯人搜査中

【海州】지난십육일 오전네시경 황주군황주면 적벽리(黃州郡黃州面赤壁里) 김효정(金孝貞)(二九)집에는 키가구척가튼 괴한일명이 조희로얼굴을 가리우고나타나서 식도를휘두르며 위협을하고서 돈을내라고하므로 시모와 며누리만 살고잇는 터이라그들은 무서워서 담배팔든돈잇는 궤속을열러 주엇는데 이자는서습지안코 대담하게도 현금삼십원을 강탈도주하엿는데 압부인들만살고 담배가가집에 복면을하고드러온것으로 보아서는필연코 어집사정과 내용을 잘아는자의 소위인것갓다 이급보를접한 황주서(黃州署)에서는 전부가튼 경계망을 거러노코사법주임이현장에 출동하야 조사를하는한편 형사대는 각처에헤터저 범인수사에 맹활동을 개시하엿스며 황해도 경찰부에서도 비상시국인 지금임으로 도내각경찰서에 수배를하엿고도에응원을하고잇는중이다

鐵物窃盜一束

쇠갑시 올라감에따라 준동하는 불가살이들

◇부내중림정(中林町)이십구번지 문봉선(文鳳善)(一八)은 십칠일오후한시쯤에 부내봉래정(蓬萊町) 이정목사십사번지 김종철(金鍾哲)의 철공전에 들어가서 장두리 독기, 지렛대등 이십여종오십수원어치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견체포되야 방금 소관서대문경찰서에서 취조를밧는 중이다

◇부내아현정(阿峴町)삼백팔십팔번지 송오룡(宋五龍)(二〇)과 최춘삼(崔春三)(二五)두명은 서로짜고 작년가을부터 봉래정사정목 이백삼십이번지 정원순(鄭元順)의 집외 삼십여집에서 놋그릇만 약천원어치를 훔처다가팔어먹은사실이 탄로되야 십팔일밤 서대문경찰서에 붓잡히엿다

◇부내종로오정목 이백삼십번지백복성(百福聖)(二一)은 작년가을부터 부내죽첨정이백십육번지동양『스프링』제작소에 근무하여 오다가 지난이월상순에 해고되엿는데 그는그공장내용에 정통함을 기회로 지난십일께에 그공장에 들어가서 『구루마』바퀴등 철물을 몰래훔처서종로오정목 모고물상에다 파러먹다가 서대문서원에게 발견되야 역시 그서에 붓잡히게되엿다

崔海月出世紀念

시내경운정에잇는 천도교중앙교회에서는 이십일일이 동교제이세교조 최해월(崔海月)이출세한 제일백십일회기념일이므로오전열한시 동교강당에서 박한규(朴漢奎)씨 집례와 리종린(李鍾麟)씨기념사로 성대히식을거행하엿다한다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黃海中部에 잇스며 여기로부터 低氣壓은 不連續線을 그리며 東進하고 잇는데 이것으로因하야 朝鮮파 南滿洲는 흐리고 黃海沿岸은 大體로 降雨가잇다 北鮮은 高氣壓으로 天氣는 良好하고 또日本邦南東洋上에도高氣壓이 잇다 日本內地는 九州地方이 좀 흐려저잇는 以外에는大體로 흐린곳도잇고 淸明한곳도잇다

豫報 京城地方의 오늘밤은 北東風 曇小雨이며 明日은北西風曇後晴이다 京畿道全區도 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一九度
〃最低	一二度
今朝最低	六五度
今日正午	九六度

今夜

廿一日午後七時三十分

第一回 레스링講習會 第一日

鍾路靑年會運動室에서

【一般의參觀을歡迎】

스포-츠

學校運動場 一般에開放

朝鮮도不遠實施

厚生省體力局에서는 國民의體位向上을위한第一步로서 全國의大學、高專、高校、中等校、小學校等의運動場을 一般에게開放하려고 일즉부터 文部省과協議中이든바 드디어그成案을어더 來四月부터實施하기로되엿다 文部省에서도 學校의授業에支障이업는範圍內에서 運動場의開放을 奬勵하고잇섯는데 이번에는 日曜祭日에는 반드시一般公衆의運動場으로開放하기로되엿다 朝鮮에잇서서도 學校運動場을開放하도록 總督府學務局에서 考慮中이라는바 不遠에實施될터이라한다

籠球候補一行 今日、京城驛發渡東

十一日午前十時四十五分 京城驛發列車로渡東하엿는데 그리고延專의 金[illegible]、李[illegible]、張[illegible]候補들도 한께出發하엿다

(寫眞은 本社來訪한 籠球候補一行)

春季럭비第七日經過

朝鮮럭비-協會主催의 春季럭비-聯盟第七日의 京師對藥專戰은 二十日午後三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千葉氏審判아래 京師軍의 키으프로 開戰한바 結局六十九 對零으로 京師軍이 大勝하엿다

京城師範 69 (21─0, 48─0) 0 京城藥專

一九四四年올림픽 大會候補地登場

【카이로十九日發同盟】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는 十九日의 會議結果 一九四四年度의 올림픽開催地의候補로서 『헬싱키』『부다페스트』『로-잔』『아테네』『로-마』等의 五大都市가 競爭케되엿스며 冬季大會候補地는 『산 모릿츠』와 『오슬로』가 가장有望視되여잇는데 以上兩大會開催地의決定은 英國代表『아바데아-』卿의 招請에依하야 來年六月第二週부터 倫敦에서 開催될總會에서 討議하기로되엿다한다

運動界人事·集會

▲閔丙大君(東京高師)(籠球候補) 合宿練習에參與코저 二十一日 渡東

▲金容植君(同)同上 ▲李裕彬君(同)同上 ▲朴龍植君(同)同上

縊首自殺 飮毒自殺(未遂)

▲이십일오후여섯시 삼십분쯤 부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 사립균명학교(均明學校) 뒷산에 칠십세가량된 조선인노파가 소나무에 목을매고 죽은것을 통행인이 발견하고 서대문서에게출하엿는데 동서에서는 그의신원을 조사중이다

▲이십일오후세시삼십분쯤 부내북아현정(北阿峴町)일백륙십칠번지 장룡락(張龍洛)의장녀 밀순(密順)(一九)은 양잿물을먹고 자살을기도하엿다는데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시골受驗生 三百圓見欺

入學시켜준다는甘言에

해마다 신입기를당하면 시험지옥, 입학난을 노리는범죄가빈발하야 어린학동을 울게하며 부형을 놀라게하는것은 일반의 특히 주의할바이다 수일전 부내고시정(古市町)경성고등예비학교생도 강시운(姜時運)이란 소년이 부내희문교등보통학교설도 꼭입학시켜준다고하므로 가지고잇든돈삼백원을 가져가 사취를당한사건이 발생하야 소관종로서에서는 가튼성질의 범죄가 잇는듯하야 엄중히 조사하는 한편 시험이 비밀하는 때인만큼 그범인을 탐한결과 부내대흥정(大興町)이

한것도갓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단나되기전에는 확실이 입학이될지아니될지는 모르겟습니다 아모조록 서에서는 정확히조사하여보겟습니다 운운

中部地方에降雨

天候는即時개일듯

【仁川支局電話】경성과 인천은 이십일오전세시부터 비가내리기시작하여 아츰여섯시까지 상당한우량에 달하엿다 인천관측소의말을들으면 금번비는 중부일대에내리어 점차서해안(西海岸)으로 확대되여가며 서남풍이 강하게불며 곳곳에 비가내리고 잇다 명이십이일부터는 천기가 점차로 회복된다고한다

白紙委任狀事件 口頭辯論延期

【仁川】인천에잇는 조선기업주식회사(朝鮮企業株式會社)대표자 촌전부(村田孚)씨와 밋그회사발기인등 십여명을 상대로 인천사는한태현(韓泰鉉)등네명이 오백여원의 백지위임장(白紙委任狀)이 비저낸 분란이라하야 도합일만일천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구두변론이 십팔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리기로 되엿든바 피고측변호인 리승우(李升雨)씨의 사정으로 연기키로되야 오는사월중일에 제일회구두변론을 열리라고한다

許萬鍾等 愛國獻金

함북성진군 학중면송하동(城津郡鶴中面松下洞) 허만종(許萬鍾)군외 이십삼명은 일즉이 설치되엇든 경운비회사건의 관계자이엇는데 그후전혀 과거를청산하야 갱생의생활을보내며 이번에 로동에종사한 수입금십이원을모아 송하(松下)경찰관주재소에 헌납을신청하고 우리들은 과거에잇서 죄과사상의 마수에걸려 수고를끼치엇스나 그후시국을 인식한동시에 아주 갱생하얏습니다고 전함을 맹서하엿다한다

祝入學

松都高普

申鉉澗 崔榮奭 金泰煥 金瑛煥 盧?德 朴鋼鉉 李伯林 金東基 李永哲 李熙燮 李相翊 王鉉 金榮致 朴勝範 李東兌 朴政日 朴容植 金東徹 李厚權 慎福晟 申學湜 柳大馨 洪依善 洪寶義 孫龍浩 尹勝求 崔雲龍 禹熙鼎 崔吉燮 蔡周鉉 李應洙 金燦雄 金裕成 李東德 朴昌善 朴東根 趙啓興 洪淳殷 鄭應彬 金良默 姜昌秀 金鎭禾 崔奉模 殷漢成 姜延哲 崔駿鎬 金河五 鄭恩善 金泰漢 宋敦弘 張文鎬 崔漢京 李錫增 金泳昌 朴應洙 李英雨 尹錫萬 成夏咸 白錫涉 金基鵬 朴大均 具東演 徐廷匯 金相演 秦東燮 李興根 金正涉 林德洙 張星烈 張用國 朴亨鎬 金英洙 楊元秀 韓禎鎬 李相鎰 金洪禹 徐駿 金國煥 金漢模 金爵衡 孫寅永 金炳奐 禹敎亭 柳洪培 金春甲 朱梯根 金東一 秦肯燮 金東炫 王圭信 禹台亨 金漢鎭 林宗喆 李相協 李寶基 李漢準 秦用燮 朴尙東 崔信根 邵泰敏 趙深弘 金鋼振 李正憲 張俊坤 金金聲 尹彰洪 崔錫淵 金德淵 申德基 李相根 李源培 朴元鎬 馬鎭健 金洪聲 洪性五 李民宰 崔景善 裵炳胄 周春模 金競會 崔濟晥 崔浩信 李貞浩 全興圭 方泰鏞 李敏鎬 崔俊永 禹沃均 禹用淳 林鎭男 李康觀 朴潤秀 林鎭元 金英會 金麟永 馬光一 禹殖淵 朴曾庠 孫炳權 禹勳亨 李漢泰 朴燦瑾 李焰 曹在弼 申淑華 高槿宜 金己洙 張義淳 朴在珪 權泰顯 林鎭九 李秋來 黃仁鎬 洪鍾武 姜大榮 朴淳玉

貞信女學校

張順實 李恩卿 朴文卿 裵永燁 尹順賢 申元禮 尹在季 金蓮姬 李熙淑 白貞淑 金恩卿 李華泳 金玉順 許順熙 金瑞利亞 金容九 權舜姙 李順愛 梁寶秀 朴善淑 姜成順 崔和淑 金二得 李英子 金甲春 李儀順 崔禮順 高金玉 李有信 李鼎培 申喜子 金斗祚 曹貞錫 李乙姬 白永金 李春子 張玉姬 秦福順 李福燁 閔賢姬 閔慶姬 金甲坤 禹順德 禹富任 朴淳陽 任順玉 金賢卿 金烈姬 金瑛順 朴性姬 (以上五十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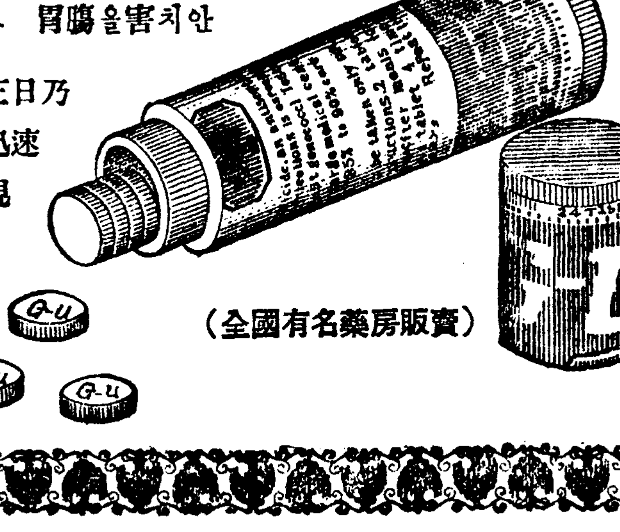
藥治淋特效藥治淋特效藥治淋特效藥治淋特效藥治淋特效藥

G-U-사이드 의偉效

社會病患者에게一大光明！

G-U사이드는 從來의治淋劑와 全然其類를달리한 新發見의 特効因子를含有한 治淋特効劑로서 現今全世界治淋界에 一大센세이슌을 惹起한것은 續續發表된 諸臨床報告로써 證明할수잇습니다。

G-U사이드는 服用도極히簡便하고 胃腸을害치안흐며 急慢性을不問하고 大槪服用三日乃至七日이면 疼痛排膿이中止되여 迅速한效果를奏하게되니 實로本劑의出現은 社會病患者에게 一大光明이라고할수잇습니다。



(全國有名藥房販賣)

ウラウト連鎖店 ·齒磨ンプラウト·鹼石ンプラウト

トウ ハミガキ

世界에서가장進步된 日本唯一의固型

進化論講座

人力車 짤랑짤랑

自動車 뿌ー。뿌ー。

飛行機 왱왱

粉齒磨는 엣취ー

煉齒磨는 질질

固型은 슥슥

ウラウト連鎖店

輔仁商業補習學校 生徒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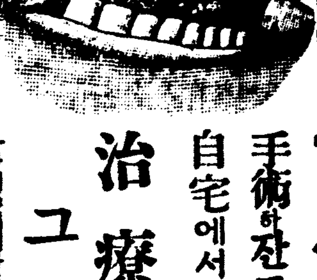
出願期限 三月末日 第一學年男子五十名

試驗期日 四月五日부터 京城府內需町一四五 電光二六六六

果樹苗木種子農產

都賓特價提供(特價表進呈)

朝鮮開城府南山町八一九 興林農園本店 振替京城一五○三七番



코나뿐사람

手術하잔코아프잔케 自宅에서할수잇는 治療와 그方法

埼玉縣大宮町(氷川公園) 東京鼻科藥房研究所

百日咳에 코데스

懸賞募集

一、問題 私ハマラソン王ガ大スキデス ソレハオイシクテ○○ガ出ルカラデス 右○○ノ中ニ適當ナ字ヲ入レテ下サイ

一、賞品
一等 高級水彩畫用道具 一揃 五人
二等 漢和辭典 一冊 五人
三等 [illegible] 一組 一〇人
四等 [illegible] 一ケ 一〇人
等外 [illegible] 本應募者全部

一、規定 應募資格 普通學校又ハ小學校在學中ノ者ニ限ル 用紙 [illegible]ニ封入シテアル用紙

一、送リ先 京城南大門通四丁目 豊國製菓株式會社懸賞係

一、締切 昭和十三年三月一日ヨリ 昭和十三年四月末迄

一、發表 昭和十三年五月中 正解者多數ノ場合ハ抽籤ニ依リ各當選者住所宛ニ通知ト同時ニ賞品送付ス

京城南大門通四丁目 豊國製菓株式會社

元氣ノ出ル マラソン王ハ各地到處ノ菓子店ニアリ 一ケ五錢

頭髮의호르몬劑

緊張하고 颯爽히!

伊豆椿ポマード

포마ー드

美髮은紳士道! 棒狀、植物性二種이옴

伊豆椿香油本舖 大阪 彩芳園

普校擴充完成後도 全學齡兒收容難期

元山府內에四一學級增設이나 七四%를收容할뿐

【元山】원산부에서는 초등교육을 확충하기위하야 십삼년도부터 십구년도까지의 사이에 사십일학급을 증설한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그초등교육 확충계획에 나타난 취학아동의 수용률을보면 아직 부족하기짝이업다. 즉십삼년도에는 전취학아동의 약육십오퍼센트 십사년도에는 팔십일퍼센트 십오년도에는 팔십구퍼센트 십륙년도에는 팔십칠퍼센트 십칠년도에는 팔십일퍼센트 십팔년도에는 칠십사퍼센트를 각각수용하게되엿다. 이와가티 소화십륙년도에 팔십구퍼센트를 수용하고는 점차 하향(下向)하야 최종년도에는 칠십사퍼센트로 떠러저서 계획전과별차가 업는데 원산에는초등교육회장추후라도 의연히 입학난은미면할것이다. 이에대하야부민가운데서는 부당국이 교육정책에잇서서 너머나 소극적인데 비난을하고잇는중이다.

住民熱誠으로 玉山學院再建

【竹山】경기도용인군외사면옥산학원(外四面玉山學院)은 설립이후 십여년간에 특별한재원이업스므로 만흔곤란을 격거오면서도 꾸준히 경영하여온것은 당지주민들의 노력에 의함인데 불행히 지난이월에 학원교사일회재로 전소된것은 본보에 이미 보도된사실이어니와 주민유지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개축케되엿는데 소요경비를 주민들이반분이상거출하고 부족되는것은유지제씨의 따뜻한동정을 바란다고한다.

釜山↓↑下關間에 旅客洪水!

한배에二千名이來往

【釜山】려행시기에 드러가게되자 관부련락선은 려객의 홍수를일우게되미마마 매일초만원을 이루게되여 지난십구일 오후십일시반에 부산항을 출항한 흥안환(興安丸)은 려객일천칠백 삼십명을 태우고 문자그대로의 립추의여지도업시 되여 출항하얏는데 그래도 려객이 남어서 임시선으로 경복환(景福丸)에 일백삼십오명을 실고하관으로 떠낫다고하며 또이십일오전 여섯시에 부산에 입항한 금강환(金剛丸)으로도 하관서 려객일천칠백칠십오명을 실고 입항하얏스며 또임시선으로 창경환(昌慶丸)에도일백륙십팔명을 실고입항하야 부산잔교는 이려객홍수로 대혼란을 이루엇다고한다

惠山公普校長 勤續記念式盛況

【惠山鎭】혜산진보통학교(惠山普校)교장 마장용태랑(馬場庸太郎)씨의 근속기념식을 거행한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당교이전기축시의 공로자표창식도 겸하게되야 십칠일오후한시부터 동교강당에서 오백여명의래빈들의 참석하에 부형회회장송채희(宋◯熙)씨의 식사를비롯하야 표창장의기념품 증정이잇고 래빈축사까지잇서 자못대성황리에 동두시에폐식하고 계속하야 축하연이 개연되자 주객이 흥겨움을 헤치고 화배하다가 복전교장의 발성으로 혜산보교만세삼창으로 세상장으로 폐연하얏다는데 교사축이전시 공로자표창을 밧은이의 씨명은 아래와갓다

表彰者氏名
普校移轉期成會長 金秉虎
同副會長 盧弘局
同總務 文南霸
惠山普校父兄會長 宋琛熙
惠山普校期成會顧問 福田政雄
同顧問 (◯◯普校長) 龜谷 武夫

大部分原地歸還

五名만縣警務科에서取調할뿐 馬和寺同胞事件後聞

【撫順】루보=지난십일밤 무순현마화사(撫順縣馬和寺)부락에서 농민동포와 만주인경사및 자경단사이에 연출된 유혈의쟁투로 인하야 동포칠십여명이 안전지대로 피란하여 무순지구부근전차정유소가는데 유숙하고잇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후피난동포가운데는 이번사건관계로 이십이명이 현경무과(縣警務科)에 일제히검거되는바람에 그들은 사방으로헤여저 친지의집이나 혹은 시내서 갈식밥을 사먹으면서 이집 저집 차저다니면서 다만오로당국의 선처만을 갈망하고잇든바 협화회(協和會)의 열렬한활동과 현(縣)당국의 관대한처결로 지난 십오일오후 검속된동포 이십이명중 십칠명만을 석방되는동시에 다석방만을 남기고는 십칠일까지 모다귀가게하엿다 지가기원주지에 도라가게하엿다 사건의시비(是非)가 누구에게 잇는지사건의 진상조사가 끗나지안어서 명백히는 알수업는바이지만 지금것 그들나 선량한식이나 루지하고 엄중취조하고잇는데 당국의처치가 매우주목되는 바이라고한다

八人組의窃盜團

釜山署에서一網打盡

【釜山】지난십팔일오후 열시경 부산경찰서 형사대가 부내소화통(昭和通)모처에 출동하야 전과이범인 류삼덕(柳三德)(三一)과 십오륙세되는 소년절도범칠명을인치하야다가 방금엄중히 취조중이라는데 전기류삼덕은 절도상습자로서 작년봄경부터 부내에도라단이는 고아칠명을 모아가지고 절도방법을 가르치고 부내각처로 보내여 절도를하게하되 만일 그날절도를하지못하야 오고 도라오면 무서운사형(私刑)을 한다는등으로 어린고아들을 혹사하야서 절도를하게한것이라하며 그간약이백여회에 이천여원을절취케한것이라한다

女子의金現强奪

木浦府內龍塘里에强盜 拳銃類似品으로脅迫

【木浦】지난십팔일밤 열두시경 목포부내룡당리(龍塘里)에사는 장경건장(張◯健)의 집에 권총(拳銃)가진 괴한 한명이침입하야 잠자던 장경건씨가족을 협박하고 업드려 장강의 안해에게 권총가튼것을 내여보이면서 돈을내어노흐라고 협박하엿스나 괴한에게 몸을다처 흥분되지못하고 힘난할때에 역시 잠을깨여 장강의 모친이 에서취침중이든 이것을보고 곳금고속에서 현금약십오원을 내여주엇스나 그괴한은 이것만 아니라 돈잇는대로 전부를 내여노흐라고 여러가지로 협박하면서 이곳저곳을 수색하다가 그만어대로인지 도망하엿다한다 이급보를 목포경찰서에 신고하엿스므로 경찰서에서는 곳전서원을 총동원하야 범인체포에 대활동을시작하엿는데 아즉체포하지못하엿다한다

自動車賃金引上 沙里院業者陳情

【沙里院】사리원에잇는 시내(市內)택시업자들과 화물자동차업자들은 끼소린값이 폭등함을따라 영업을 계속하여나갈수가업다고 경찰당국에 지난십팔일 오전에 진정입로 화물차는 사키로에일원이십전식을 일원오십전으로 각각요금인상을 허가하여달라고진정하엿는데 경찰측에서도 그들요구를 어느정도까지 이해하고 곳 도(道)에 교섭하여 적당히 허가하여주리라고한다

學校長會議開催

【平壤】학무과장회의에 출석햇든 무미(武尾)평남학무과장과 무전(武田)시학관은 십구일밤차로 귀임햇는데 이십팔일에는 공립보통학교장회의를 개최하기로되엿다 내선공학이 사월일일부터 실시되는관계로 보통학교를 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되여 여기에대한 협의와 금후신학제실시에대한 주의지시등이 잇슬터인데 교명변경은 대부분은 지명(地名)을 부치기로 되엿스나 지명을 부치기에 부적당한것은 지명을 피하고 다른일홈을 부치기로 될터이다

地方人事

▲朴俊◯氏(前漢城銀行大邱支店長代理)本店榮轉人事次 本社大邱支局來訪
▲白高山一行(少年◯◯家)來邱人事次同上
▲吉村來治氏(前府財務課長)慶北道會計課長榮轉人事次同上
▲津末安忠氏(道◯)大邱府財務課長榮轉人事次同上
▲兪泰榮氏(光州地方法院書記)轉任人事次 本社木浦支局來訪
▲岸田洞淑氏(前朝銀城津支店長)龍山轉任人事次 本社城津支局來訪
▲金弘植氏(平壤府社會係長)支社昇格祝賀人事次平南支社來訪
▲金浩植氏(崇實教授)同上
▲鄭錫泰氏(甫川實業家)同上
▲金德三氏(鎭南浦加德普通學校訓導)同上
▲李應敎氏(裡里榮町郵便所長)新任人事次本社裡里支局來訪
▲金鎭鋪氏(咸興商工會社長)支社設置人事次 咸南支社來訪
▲◯◯◯氏(有志)同上
▲◯◯◯氏(咸興商工會社員)同上

二十一日(月曜)

◇午後六時童話「兵隊さんの◯◯」 金◯鎭
◇同六時二五分 趣味講座「春分」 ◯◯◯
이야기」中東學校 ◯◯◯
◇同七時三五分 一、새打鈴 二、大字빼이 三、興打鈴 ◯◯玉 ◯◯玉
◇同八時 晉律 ◯山 가락도도리 上弦 잔도도리 下弦 念佛 打鈴 ◯◯中 ◯◯
◇同八時三〇分 連續野談「友◯」朝鮮正樂傳習所員 張志浩
(二)
◇同九時 女聲合唱及獨唱 一、合唱歌劇『탄호이저』中 大合唱 二、二重唱 노래하라(◯成女、張守突) 三、合唱 歌劇『魔彈射手』中 사냥의 合唱 四、三重唱 종거운새(金可原姜甲淳、金炳淳、金貞燮、白玉姬、林福童) 五、獨唱 아ー牧童아(◯成女) 六、合唱 짠아 中央保育合唱隊 指揮 崔熙南 伴奏 任永◯

第一放送
◇午後六時(大)國史劇
◇同六時三〇分(城)講演
◇同七時三〇分(東)手帖
◇同八時(城)토ー키ー
◇同八時三〇分(靜)歌謠曲
◇同八時五〇分(靜)浪花節

二十二日(火曜)

◇午後〇時五分 레코ー드音樂
◇同一時一五分 新婦講座(二)『第一篇』『家務管理』 同德女高 宋今◯
◇同六時 學校劇『卒業날』培花女子普通學校兒童 作과指導 洪銀杓
◇同六時三〇分 講演『自然과人生』 梨專 金同銘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四〇分 講演『想像과文學』 延專 鄭寅燮
◇同八時(東)管絃樂 一、歌劇『로ー엔그린』前奏曲…와ー그너ー作曲 二、交響曲第八番B短調(未完成)…슈ー베르트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아우그스트·융겔
◇同八時三〇分 連續野談『友誼』(二) 張志浩
◇同九時 一、寧邊歌 二、제비歌 三、달거리 四、小春香歌 郭明月 郭山月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浪花節
◇同六時(東)童話劇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東)歌謠
◇同七時四〇分(自天津)
◇同八時(東)管絃樂
◇同八時三〇分(東)新日本音樂
◇同八時五五分(東)常磐津

各學校合格者

平壤高普

金日性 文俊彬 金永柏 安文昊
金正燮 張◯善 韓鍾星 方必善
吳文奎 金◯煥 河東源 沈德◯
文德濟 韓孝根 金禹燮 李庚懋
劉淳鳳 趙炳杰 宋亨燮 劉成錫
金敎亮 桂一淳 李鳳墳 咸龍典
劉泳燮 崔鎭候 朴義雄 咸瑛湜
金根杓 金德洙 金炳斗 吉台鉉
楊秉錡 金相厚 李熙春 林鍾◯
洪正義 李官徽 閔仲鉉 安利謙
朴寔松 李丙扶 徐貞燮 康允燦
朴昌範 方興基 全檜純 全子烈
金基雄 金觀英 李東洙 韓炳球
明根柱 金秀吉 金鍾光 梁保民
吳世庚 金在昫 金光哲 吳聖均
金鎬燦 金聖諧 宋秉禹 鄭燦彬
崔在甲 朴龍官 金旭燁 池龍根
池正植 白銀祚 林時陽 盧熙燁
宋熙喆 金昌柱 李成吉 姜宏錫
朴炳錫 金弼昌 金在亨 黃鍾燁
楊鵬寬 朴明燦 吳壽益 盧能杰
李允明 黃仁 金基洙 韓來復
李光 金麗瑛 李隆馥 李根在
金華善 崔成燁 趙成鎭 李秦鉉
李榮善 朴昌一 鮮于根培 兪聖藏
鄭德模 金浩燮 金基永 安應植
金善元 朴永華 崔聖數 實龍熙
金在浚 李根燮 林泳埴 黃迪憲
林駿燮 尹昌和 李弘俊 金利根
方賢燦 尹永銓 馬濟英 文在田
李成根 盧成昱 韓永成 金益秀
李基俊 金振鐸 張正澤 崔相鉉
李榮周 田䨥觀 郭昌文 洪世謙
高聖錫 金基哲 宋泰燮 金政
朴承勳 金錫漢 李丕載 盧道鍵
黃潤相 梁在燁 吳熙瑞 盧文鮮
金炯哲 金京鎭 金鍾萬 卓光秀
任台彬 李永根 金鍾板 金燦道
安義柱 安春植 金時遲 趙能淳
崔浚喆 孫雄 金道濬 林信穆
黃燦求 李鍾燮 康壯燮 蔡金瑞
金成煥 曹錫根 吳貞民 方正玉
林正極 鄭大鉉 趙東淳 朱昌煥
金昌禧 明泰鉉 李在植 韓錄瑞
趙鍾俊 朴文俊 金來泳 安永勇
姜貞益 金元模 金春珖 張振健
蔡在元 金相勳 金蘭奎 康元植
黃善榮 宋利根 李範錫 沈麟洙
金成大 金昌祥 李德祐 尹國鉉
金光成 金甲洙 李貞郁 李君栽
金錫聲 禹成國 李錫夏 李三英
金光祚 金元禹 金敎泌 金永健
玉時伯 金洪柱 李鍾珍 金正權
洪銓燦 鄭昌祿 金宗卓 金應驛
孫基源 李相塤 李英洙
計二一九名

晉州農業

黃祥圭 許尙相 久利孝良 金化日
白南佶 曹祥奎 李鉉納 河禹植
申昌熙 盧啓九 金成鏞 黃性助
千葉邦雄 崔任錫 田浴仁 李甲相
朴喜永 林禎澤 徐點鎬 李永大
李炳先 張貫基 鄭末石 裵千煥
徐輔燻 許南正 辛惟煥 鄭然實
金◯奎 諸五植 諸又祚 崔敬禧
崔在三 李泰福 金容宇 金七信
金洙玉 李鍾柱 金鍾秀 朱尤仲
姜鳳祚 權相龍 金吉銘 金炳穆
李泰旭 柳幸奎 全永模 金鉉重
鄭泰孝 池相源 鄭道鎬 金汶孝
河麟圃 姜和秀 鄭永杓 崔鐘功
尹琦漢 金仁謙 郭鎭弘 平田恒夫
安快中 李東埔 陳明五 河善玉
金鳳郁 姜慶鳳 矢野繁高 李鍾範
徐庭郁 崔裕卿 姜瀾東 中島高德
沈萬孝 權明鎬 劉尙鴻 千甲洛
姜貞鎬 趙顯轍 卓甲守 韓允來
以上八十名

平壤農校

李基祚 陳用鶴 李圭雄 崔仁煥
金炳吉 朴連德 林在植 林鎣朝
朴松福 尹鍾浩 李鍾敎 林永權
李東三 李發圭 高龍俊 金浩恩
黃鍾昌 李永杰 李在雲 金基夏
趙五鏞 鄭光世 田錫八 趙相燮
李萬錫 金基全 朴昌烈 孔龍成
趙正基 朴基正 黃健燮 洪福國
韓熙錫 金鉉鎭 李秀鉉 鄭秉秀
田甲琦 金寅明 金承命 尹炯周
金孝賢 李鍾洙 金甲 金東一
劉錦柱 韓用杰 崔鳳燮 韓相莛
吳熙植 李在淳 朴演初 朴東漢
尹寧燮 金鍾燾 李昌樞 吳云三
高昌信 李鍾協 朴純模 李德馨
安永瑞 羅相吉 林亨俊 閔炯植
李鍾甗 李章涉 金寶益 韓亨燮
金能九 張元燮 羅寶基 明春植
朴榮淳 鄭升斌 金昌驥 李瓊良
尹敬曦 洪仲熙 朴潤德 崔行益
鄭淳德 辛泰吉 林士容 金致陸
金鍾基 尹基喆 韋相憲 宇野健
林相完 朴哲模 湯在毅
朴成鶴 金昭相 康仁華 康琦謙
吳勝湧 李瓊俊 尹炳敦 金元和
吳元烈 柳孝鉉 (以上八一名)

晉州高普

權景植 姜大琬 李宗相 朴孝倫
姜壩 朴玄秀 許南政 李秉鶴
許禎護 許沃九 趙東來 金東活
朴相牛 金萬守 洪榮喆 姜南奎
鄭忠湜 趙日來 徐內權 申孝湜
白作基 崔子卿 黃瑗性 權淳續
黃淳國 金桑浩 趙文濟 姜東鎭
鄭宙和 金洪大 金斗泳 申鋪熙
尹斗根 鄭鉉丰 韓圭鎬 孫濟武
鄭辯圭 河大興 河龍泰 李起燮
金鍾賢 權淳翊 李東軒 黃錫善
柳在泰 姜文錫 文明尙 河仁萬
姜聖泰 沈九燮 金榮來 朴鍾漢
鄭然杓 鄭泰鶴 李明洙 李明基
姜東權 權義鶴 金玎坤 柳達培
姜祥鳳 朴東權 姜聖基 黃啟龍
徐柱成 閔泳玉 金觀植 南相瀚
金洪燦 曹在榮 金聖龍 許南卜
李元烈 金學洙 金基運 孫元祚
朴東柱 盧鴻漢 朴炳祺 金一根
全敬玉 金容柱 柳陽馨 鄭小珠
成孟奎 孫永藥 金龍均 金炳鎬
宋銀奎 裵相宇 鄭潤根 金玉成
李水東 卞龍熙 朴甲善 辛容濂
金一斗 孫南得 河啓一 徐鶴卿
名取友一 白須友治 井上保杉
野一馬 竹市保義 石本文生

馬山商業

李炅揆 朴鈺植 尹忠學 李碩述
李大烋 白相采 徐演昌 金東俊
丁和鎭 黃潤奎 卞哲煥 曹東煥
孫麟得 金在榮 李秀春 李仁和
許璿道 兪周五 朴定敦 金桑奎
尹丁漢 嚴昌炫 金尙洙 田德祚
河基楝 金洪吉 金祥鎬 韓明洙
玉卜煥 李祥鉉 宋在永 朱宰奭
金聖立 金鍾現 李逸燮 裵鉉斗
金守漢 金炯培 李炳好 金相虎
趙達濟 黃鉉道 金羲鎬 李相漢
鄭鶴永 千炳旭 全洞宣 朴容太
金王岩 恩田信 太田耕作 大野陽
三郎 竹內繁 林榮臨

毛筆ペン習字兼用 婦人一生役立つ書籍附錄

吉屋信子先生著
婦人の手紙全集
增補 婦人の手紙文章讀本・菊池寬

比田井小琴先生 毛筆指導
鷹見芝香先生 ペン字指導
日本一の先生が門外不出の秘法公開
四五圓の値打ある新式圖解お手本
手紙指導は吉屋先生が見本
文章指導は菊池先生が見本
毛筆指導は比田井先生が見本
ペン字指導は鷹見先生が見本

凱旋する病院船に便乘した本誌記者の感激報告記
三十代四十代の夫婦圓滿法・式場博士
性病の夫婦の秘密療法・秋山博士

第二附錄 廢物利用の流行の家庭染色集

三大附錄付로도 단 七十錢 (送料十四錢)
四月號 評判號
懸賞募集 二千四百圓贈呈 婦人愛國の歌
『主婦之友』의大計劃에 應募하라 大評判의
遣米使節山田わか女史 歸朝報告大講演會

主婦之友

轟夕起子のにわか盲日記
ロッパ司會
愛妻慶讚 智子裏方の
戰線慰問記 わらわし隊
爆笑報告記
物價は騰る!! お台所對策相談會
櫻井少將を感激させた空の犧牲者白相少佐の夫人物語
植村中將夫人が斷罪の法廷に立ちて涙の懺悔
これからの夫婦これからの結婚座談會
職業戰線に活躍する大阪婦人の座談會
年收千圓は確實な新しい養鷄法の實驗
大評判小說 吾亦紅 久米正雄
熱狂小說 結婚天氣圖 菊池寬
熱狂小說 妻の場合 吉屋信子
熱狂小說 春の園 橫光利一
熱狂小說 人肌觀音 小島政二郎
熱狂小說 母戀鳥 吉川英治
熱狂小說 胡椒息子 獅子文六
熱狂小說 炎の薔薇 石川達三
熱狂小說 緋の蜘蛛 片岡鐵兵
熱狂小說 愛情偵察隊 齋田一夫
家計相談의小汀利得先生과 살림잘사는婦人들 秘訣公開
百圓から千圓まで 婦人向の新商賣案內
經驗업는婦人도簡單히되고資本도들잔코必히繁昌하는새로운장사의實驗集發表 未亡人과婦人의內職으로好適

主婦之友社 東京神田 振替(東京一八〇)
半年分四圓十錢・一年分八圓(送料共)

長篇小說

濁流 【155】

蔡萬植 作
鄭玄雄 畵

食慾의方法論 (12)

『장골이 너는 이러케 공부를 헤가지구서 언제자라면 무얼 할련?』

승재가 뭇는말을바더 아이는 서슴지도안코 냉큼

『저는 선생처럼 돼요』

한다.

『나처럼? 그건왜?』

『저는 선생님이 조하요』

승재는 속으로 네리끼 쥐가 든놈이라고 우섯다.

『그다음 너는?』

맨뒷줄에서 제일 대가리큰놈이 우뚝 이러선다. 눈만 두리두리 퀭하지 얼굴이 매친데가 업고 둔해보인다.

『너는? 너는공부해서 무얼할 테야?』

『네 저는 조선총독부될래요』

아이들이 해깟해깟 돌려다보고 그중 몇놈은 빈들빈들 웃는다. 승재도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엇다.

『그래 조선총독이 돼서 무얼 할련구?』

『월급 만히 밧겟요』

『월급은 얼마나?』

『백원……。아니 그보담 더 만이요』

『월급은 그러케 만히 바더서 무얼 할렌고?』

『막구 쓰구, 그리구……』

그다음은 종쇠라고하는 열두어살이나 먹은놈이 불려 일어섯다. 코물이 흘으고 옷어리는 건 때가 누덕이 안고 손등치가 버어저나오는 학게어다.

『너는 공부해가지구 인제 자라면 무얼 할렌가?』

아이는 고개를 돌지안코 것눈질만한다 어애는 늘 이러케 칭칠한 아언데 오늘은 유난히 더해 보인다.

『자! 종쇠두 대답 해봐?』

『저어……』

『응』

『저어……』

『응』

『순사요』

『순? 사?』

뒷줄에서 두어놈이 킥킥거리고 웃는다. 웃는소리에 종쇠는 가뜩이나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기피 떠러티린다.

『그래, 순사자 되구싶다?』

『내애』

『응, 순사가 되구시퍼……。그러데, 어째서?……』

『저어……』

『응』

『저어 우리 아버지가……』

종쇠는 그뒷말을 다 하지못하고 손구락을 묻다.

『그래 느어 아버지가 널더러 순사 되라구 그리시든?』

『아니요』

『그럼?』

『우리 아버지 잡어가지 말게요』

아까보다 더 여러놈이 웃는다. 승재는 왜 웃느냐고 아이들을 나무래노코 황망히 종쇠더러 물어본다.

『종쇠 너 순사가 느여 아버지를 붓잡어가든? 응?』

『내애』

『원 저걸!』

승재는 깜짝 놀랜다.

승재는 전서방이라고 살기는 『사쩽이』에서 살고, 선창에서 지겟버리로 겨우 먹고사는데 며칠전에 다리를삐엇다고 승재한테 옥토정기끼지 어더간 사람이다.

그리고 집에는 언해와, 종쇠를 매엔 운두머리로 섯맥이끼지 아이들이 넷이나 되는것도 승재는 확하니 알고잇다.

『그래, 언제 그랫니?……』

승재는 종쇠여프로 내려와서 숙우리고 섯는 아이의 얼굴을 디려다본다.

『어저께 저녁에요』

『응……。그러데 왜? 어쩌다가?』

『저어……』

『응, 누구하구 싸움 햇니?』

『잘 훔쳐다 먹엇다구……』

승재는 아뿔사! 여러 아이들이 듯는데서 물을말이 아닌걸 그랫다고 뉘우첫스나 할수업섯다 그는 서도 몰으게 사나운 얼굴로 달은아이들을 휘 둘러본다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에 겁들이 나서, 쇠다 천연스럽게 안저잇고 한놈도 웃거나 저이끼리 소군거리는놈이 업다

승재는 어으고 언생을 눅히고 한숨을 내쉬면서 풀끼엇시 교단으로 도루 올라선다

『그래 종쇠야?』

『내애?』

『너는 그래서 순사가 되겟단 말이지? 느이 아버지가 남의쌀을 몰래갓다먹어두 너는 잡어가지 안켓단말이지?』

『내애』

『응…… 그래 느이아버지를 잡어가지 말려구 그럴려구 순사가 될테란 말이엇다?』

『내애』

『그럼 남의쌀을 몰래 갓다가 먹은 아버지는 그랫서두 아버지는 착한 아버지란 말이지?』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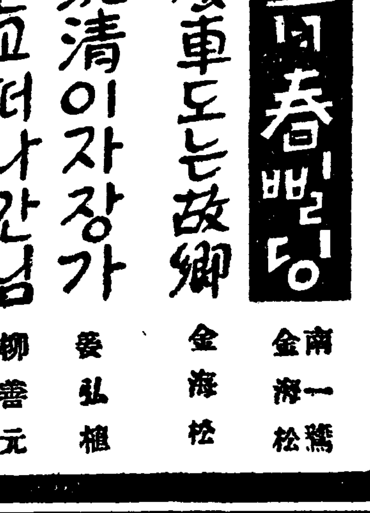
『아니야?』

『내애』

『그럼 나뿐 아버지가? 종쇠랑 동생들이랑 배 고파허니까 밥 해먹으라구…… 그래서 그랫는데……』

『그러니깐 나는 아버지 붓잡어 안가요』

승재는 솔분 동화를 듯는것가티 눈갓이 매워오고 목이메어 더 말을 하지못햇다.

골럼비아 四月新譜
流行歌
無敵歌姬 朴響林孃의 決定盤
우리는 멋쟁이

(朴響林孃)
靑春빌딩 南一鷰 金海松
風車도는故鄕 金海松
沈淸이자장가 姜弘植
울고떠나간님 柳善元

REGAL 리—갈레코—드
우서주세요 선어소와들조의 미스·리갈 金紅梅
碧空 려라꽃은 피것만 林園
날찾네 날찾네 相思別曲 金周鎬

新發賣 콜럼비아—포—타블

第二五〇號
賣價 ¥55
總發賣元 株式會社日本蓄音器商會
注文殺到! 品切! 品切!

少年 四月號가나왓다! 단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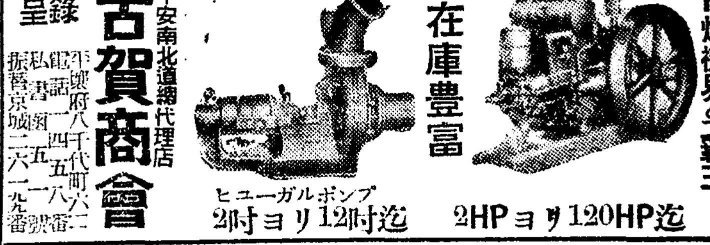
指導事業
今般本事業部에서地方官民農村의便宜를圖하기爲하야各種必需商品一切斡旋事業을着手하고忠實堅實한適任者를人選中이오바有利事業은相互指導하며適任者는任意의區域과僅少한資金과保證人이必要함照會는大第即回答返信四錢切手添送
京城府臥龍町八〇番地 朝鮮警察新聞社事業部 振替口座京城二八四四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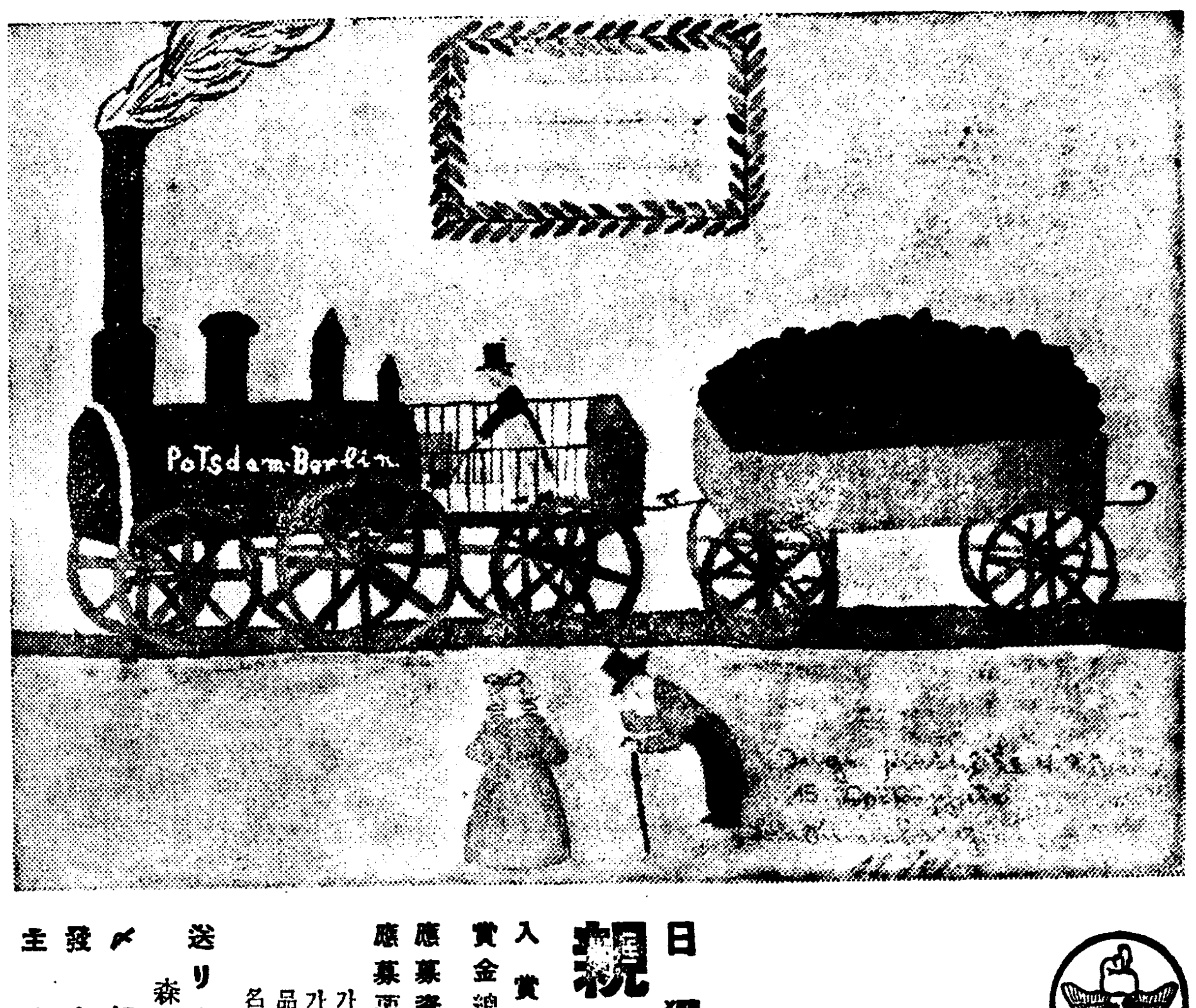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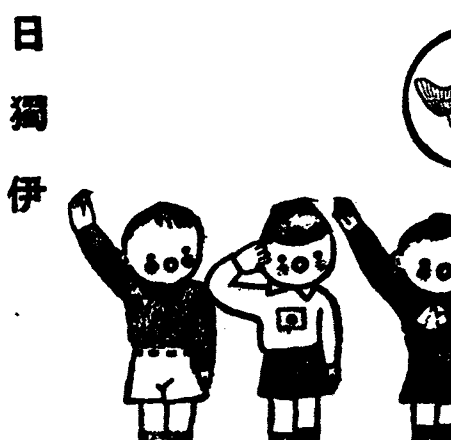
昭和の常識
생선도마을구을때는川魚면껍질부터海魚면살부터먼저구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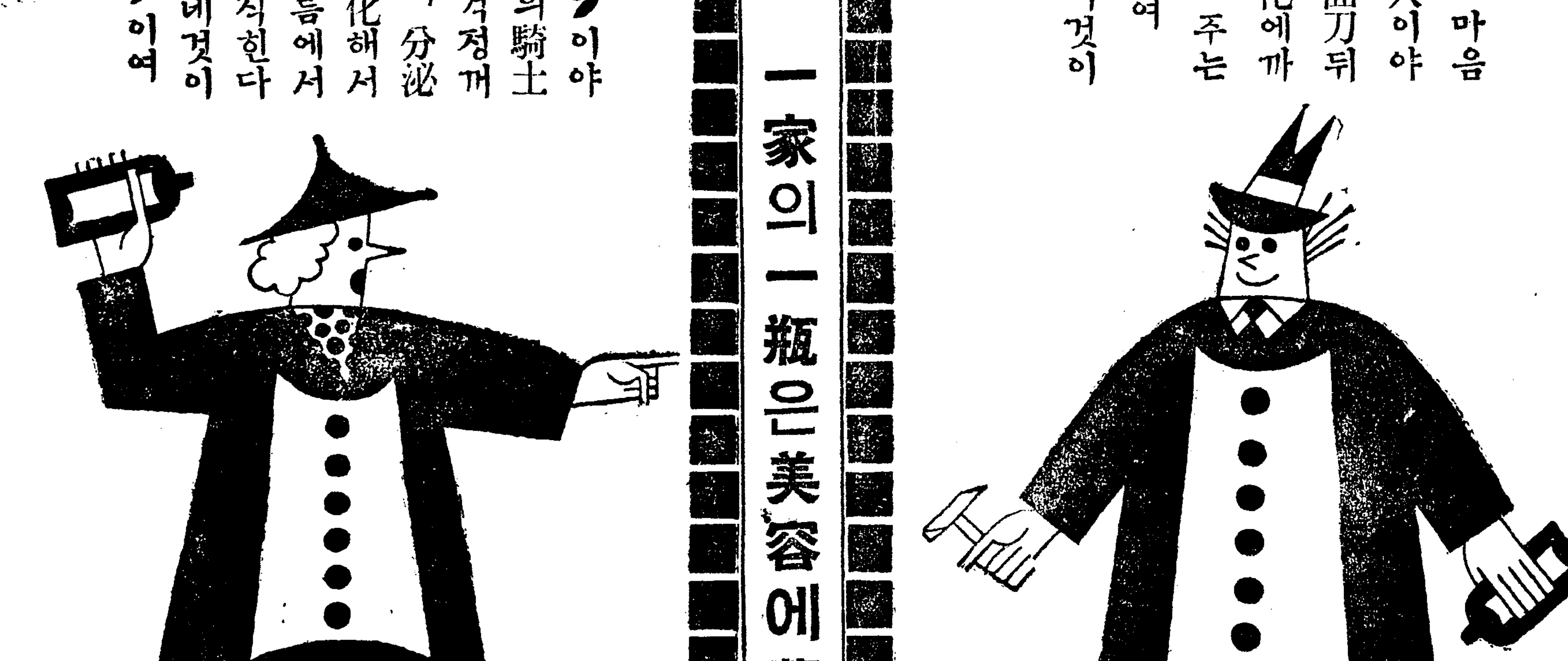
西煙土
草되울때 仁丹먹읍시다
니코친의害를緩和하고 담배맛도조타
[仁丹]
담배한대不快할때仁丹은快適

朝鮮信託
貸出業務案內
不動産擔保貸付
有價證券擔保貸付
年賦、定期償付を低利迅速に御取扱致します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二
支店 群山、釜山、本浦、平壤、大邱、咸興
營業案內贈呈

長箭支局 電話 二二六番

ヤンマーヂーゼルエンヂン
於農林省比較審査甲位入選 內燃機界의霸王
在庫豊富

ヒユーガルポンプ 2吋ヨリ12吋迄
2HPヨリ120HP迄
平安南北道總代理店 古賀商會
平壤府八千代町六二 電話二四五、一八六番 私書函二五 振替京城二六一九一番
型錄進呈

이것은 獨逸兒童의 그림입니다
最初의鐵道開通 연·게·피—린君 (十一歲)

日獨伊 親善圖畫 募集
入賞者 七、四五〇名
賞金總額 五〇、〇〇〇圓
應募資格 小學生·男女中等學生
應募要件 畫用紙四つ切大以內·和紙·絹 가능은 반드시 배접한것으로할것 크기는 畫用紙와 가른圖畫의 種類、畫題는自由 但創作에限함 作品의裏面에 題名、學校所在地、學校名、學年名、氏名、年齡(滿何年何個月)을 잉크나墨으로 明記할것
送り先 東京市芝區田町 森永製菓株式會社學藝部
〆切 六月三十日
發表 十月一日(全國主要新聞紙上)
主催 森永製菓株式會社

森永ミルクキヤラメル 밀크캬라멜
五錢·十錢

ヘチマコロン 헤치마코론
コロン은 마음씨 고운戀人이야 상양하게 面刀뒤의 保健美化에까지 마음써 주는 コロン이여 정말 사나이것이라할까?
아니コロン이야말로 薔薇의騎士야 봄철의걱정꺼리、살결의 分泌를 調節淨化해서 怨敵 여드름에서 女人네를 직힌다 아—女人네것이다 コロン이여
一家의一瓶은美容에萬能

40전·63전·95전
本舖東京★株式會社·近源商店★天野源七

一回配本
現代朝鮮文學全集 短篇集 (上)
天馬行空의勢로 再版大賣出中!!

注文山積

最近三十年間의 朝鮮文學의 精髓를모아 全七卷의『現代朝鮮文學全集』을 發行하는것은 滿天下의 熱烈한支持를바더 그第一回配本으로『短篇集(上)』이發賣되자 全讀書界는 如狂如醉하여 初版이不日中에賣盡되고 再版이出來하여 이亦是 賣盡되여가는中이다。滿天下讀者는이朝鮮文學의最高力作이오 또는 全輪廓이라고할만한이全集을하루속히机上에 備置하라!

一回配本 短篇集(上)目次
할멈 李光洙
元致西 李箕永
福德房 李泰俊
旱鬼 朴花城
물레방아 故羅彬
봄봄外一篇 故金裕貞
乳母 嚴興燮
모밀꽃필무렵 李孝石
距離 朴泰遠
蒼白한안개 張德祚
嫉妬 李石薰

好評藉藉의短篇集(上) 出版界驚異! 朴月灘
文壇、出版界를아울러 讚賀할만한일이다。첫재로裝幀과紙質이조타。朝鮮에서보기드믄 豪華한책이다。이만하면外國書店에내노는대도 조금도遜色이업슬줄안다。맵시잇는 新潮社版비슷한 裝幀! 이것거일곱권이完成되는날이면 書架에꼬자노아도자랑거리가될것이다。內容을본다면 거의다 作者가自選하다십히한것이니 그들의藝術的노픈香을 우리가다欽仰하는頭目두넘겨드리지 못할 훌륭한力作들이다 더욱이『할멈』의素撲한맛과『물레방아』의凄絶한哀愁『福德房』의쓸쓸하고도 爾潔한香氣、距離의 市井臭는 다이처지못하는 조흔作品들이다

全七卷의 全集偉觀!

한글校正 이번全集은朝鮮語學會에서全責任을지고 한글을校正하여一字一劃이라도 誤謬가업도록 完璧을期한것이니 本出版部에서도 적지아니한자랑이거니와 讀者諸氏에게도 크나큰 도움이될것이다 그리고 全集卷頭마다 現滿增員의 原稿가揭載되는것은 實로 錦上添花로서 本全集을 一層빗내는바이다

四六版크로쓰豪華洋裝
一冊三百六十頁의大冊
定價 一冊 一圓二十錢
書留送料二十二錢
一時拂 七圓 (送料本社부담)

京城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